

# 한반도 첫수도 고창소식

07  
2020  
제 460호



발행처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FAX 063.560.225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063.560.2327)  
'고창소식' 이젠 스마트폰에서 보세요. (고창군 스마트알리미 어플 무료로 다운)

##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대표하는 명품 십리 '근민정' 탄생

대한민국 한옥 명장을 꿈꾸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단이 고창군청 멸구술나무(천연기념물 502호) 옆에 멋들어진 전통건축양식의 정자 '근민정(近民亭)'을 만들어 고창군에 기증했다.  
근민정은 "가장 쉽고 간편한 행정으로 군민속으로 들어가서 군민과 함께 울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 가자! 바다로, 더위 잡으러 '퐁뎅!' 올 여름 휴가는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에서!

무더운 여름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달래고 싶다면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구시포·동호해수욕장으로 달려가자. 고창군 상하면의 구시포해수욕장은 고운모래가 십리에 걸쳐 펼쳐지고 송림이 우거져 오토캠핑과 가족단위 캠핑장소로 제격이다. 주변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와인글라스(wine-glass) 형태의 구시포항이 개발돼 멋진 등대와 함께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해리면 동호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의 모래사장과 갯벌이 어우러져 얇은 수심으로 어린이도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백사장 뒤쪽으로 가지런히 서있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동호해수욕장 옆 하전어촌체험마을의 갯벌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물이 빠지면 1km이상 드러나는 널찍한 갯벌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바지락·동죽 등 조개류와 돌게·고동 등을 채취할 수 있다.



## 2 최고품질 고창수박, '높을고창' 브랜드로 인터넷 판매 시작

전문 선별과 품질관리 통해 8kg이상, 12브릭스 이상만 '높을고창' 브랜드 사용

명품 중의 명품. 최고 중의 최고. 고창수박 중에서도 최고 품질의 수박들이 엄선돼 '높을고창' 브랜드를 달고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고창군과 CJ제일제당 식품전문몰 CJ더마켓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소비자에는 고품질 고창 특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창수박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비옥한 토양에서 높은 일조량과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와 식감이 뛰어나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문선별과 품질관리를 통한 프리미엄 수박(8kg 이상, 12브릭스 이상)만이 '높을고창'브랜드를 달고 소비자들과 만난다. '높을고창'브랜드는 고창군의 프리미엄 농특산품 통합브랜드다. '고당도·고품질 고창 농산물'을 의미하며 수박을 시작으로 멜론(9월), 친환경 쌀(10월) 등이 공동선별·품질관리 등을 통해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다.



## 빨갳고 새콤달콤한 맛, 고창체리가 뜬다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 고창에서 재배된 명품 체리가 새콤달콤한 맛과 식감으로 전국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6월13일 오후 고창 황금지 체리농원 일원에서 '제3회 고창 체리의 날' 행사가 열렸다. 고창체리연구회(회장 윤병선)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한 나무에 달린 체리를 모두 따갈 수 있는 경품추첨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고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5개 대표품종 전시와 시식회, 5개 농장의 체리 판매행사 등도 진행됐다. 친환경 과일인 고창체리는 수입산 체리에 비해 달짝 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강하다. 특히 개운하고 저장성과 식감이 좋아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름철 과일로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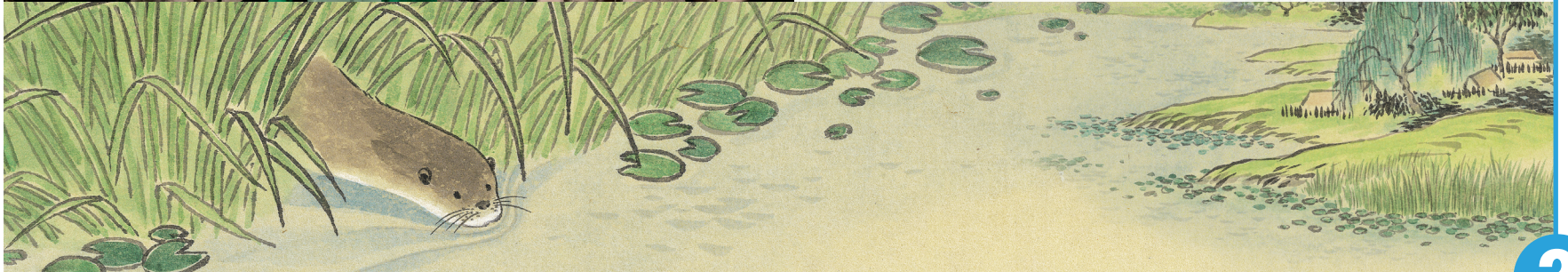


## 운곡습지 선남선녀의 애뜻한 사랑이야기 감성농악 운곡로맨스, 생명의 날개옷



(사)고창농악보존회가 2020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Green 감성농악 '운곡로맨스 ; 생명의 날개옷'을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고창농악전수관 야외무대에서 공연한다. '운곡로맨스 ; 생명의 날개옷'은 현 운곡람사르습지가 형성되기 이전의 수몰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베이골 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선남선녀의 사랑이야기가 중심이다. 여기에 고창농악을 비롯한 사자춤, 부채춤, 지전춤, 용기놀이 그리고 판소리와 서정적인 노래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구재연 고창농악보존회 회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공연이 진행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공연의 다양한 볼거리와 사랑이야기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의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역체계 준수로 '공연장 입장 전 관람객 발열 및 증상 여부 확인'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관람 시 좌석 2m(최소1m) 띄어 앉기' 등의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_ 고창농악전수관(063-562-2044)



3

## 해설이 있는 판소리, 관객은 즐겁다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신개념 판소리공연



'대한민국 판소리 성지' 고창군에서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할 신개념 판소리 공연을 즐겨보자. '나도 귀 명창'공연 말 그대로 판소리를 듣는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무대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7시 동리국악당에서 열린다. 고창이 판소리사에 영향을 끼친 지역적 특징과 판소리의 핵심어와 사설 등 매력을 드러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공연은 회원제로 이뤄지며 현장에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고창군 국악전문공연장인 동리국악당에서 제1강 '고창과 판소리'라는 주제로 판소리 연구가인 최동현(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이 해설을, 떠오르는 젊은 소리꾼 정호영(국악예술단 고창 단장) 명창이 수궁가를 공연했다. 고창군청 전민중 문화시설팀장은 "판소리 공연을 볼 때 신나게 '얼씨구'하는 호응을 넣어준다면 더욱 즐거운 관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문의\_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





군민에게 힘이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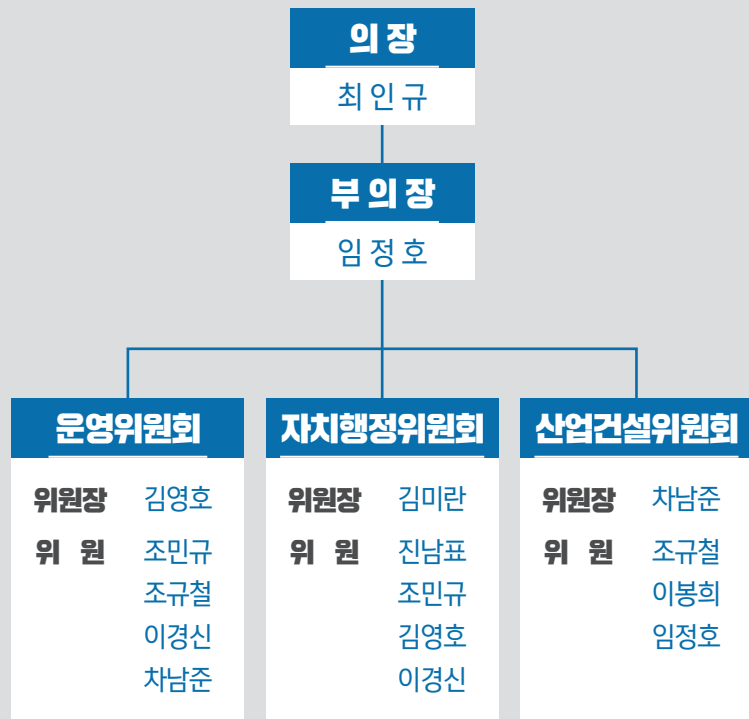
연구하고 노력하는



##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출범

고창군의회는 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원구성을 마무리 하였다. 의장과 부의장에는 각각 최인규 의장, 임정호 부의장이 선출되었고, 상임위원회에는 김영호 운영위원장, 김미란 자치행정위원장, 차남준 산업건설위원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최인규 의장은 “먼저 지지해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기를 의미 있게 매듭짓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 제8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현황



4

##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의장 인사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창군의회 의장 최인규 입니다. 새로운 다짐과 열의로 고창의 미래를 열어나갈 제8대 고창군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발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제8대 고창군의회는 보다 성숙한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군민 여러분께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라는 의정 구호 아래 군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군민 여러분이 참여하고 함께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께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는 군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10명의 의원들이 하나 된 목소리로 군민의 삶을 더 살기 좋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고창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숙한 군민 의식을 발휘하여 정당하고 순리적인 방법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고창군의회는 최선을 다해 군민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는 군민의 대변자이며,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반기 고창군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고창군의회 위상을 한 차원 높게 만드신 조규철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고창군 의회가 올곧고 진실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

고창군의회 의장 최인규



## 코로나19 극복! 이웃돕기 성금 기탁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달 12일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군민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기 위해 모든 의원이 십시일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조규철 전반기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돕기 위해 의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00만원 상당의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고창군에 기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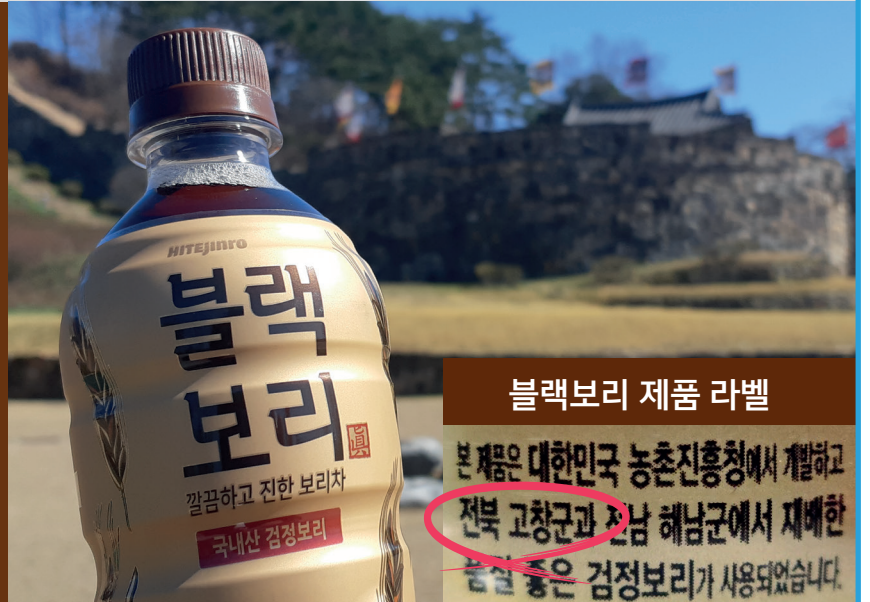
# 고창산 블랙보리음료 미국시장 진출,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기대감 높아

하이트진로 '블랙보리' 미국 시장진출 · 복분자, 수박 등 건강음료 연다식 홈런 예고

한반도 첫수도 고창표 블랙보리 음료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면서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창에서 재배된 검정보리로 만든 음료 '블랙보리(하이트진로음료)'가 미국 대형 유통체인 트레이더조(Trader Joe's)에 입점해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음료시장에서 탄산이나 주스 등 기호음료시장은 정체인 반면 생수와 물 대용 음료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30년 역사의 700조원 규모 세계 음료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고창군 베리앤 바이오식품연구소 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근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 복분자와 수박, 멜론, 체리, 발효식초 등 지역 명품 농특산물을 기능성 스포츠 음료 개발에 착수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식품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농산물 구매 증가 효과로 농업인들은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한반도 고대문화의 중심, 사적 확대지정하고 마한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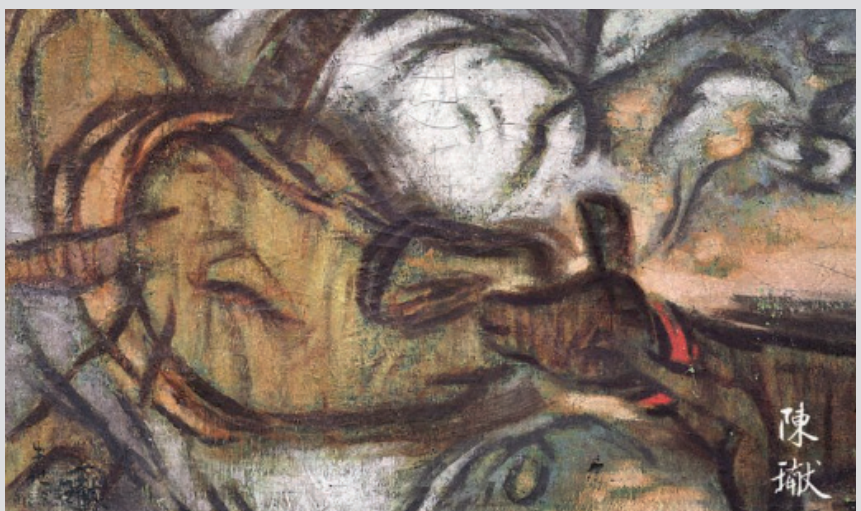


‘고창 마한고분군 사적(확대)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6월24일 오후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창 봉덕리고분군의 가치를 강조하고, 사적 확대지정을 시작으로 고창 마한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유적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2009년 1호분 발굴조사에서 돌방무덤을 비롯해 옹관과 석곽 등이 확인됐다. 특히 금동신발과 중국제청자, 금귀걸이 등 수준 높은 유물이 출토돼 5세기 무렵 고창마한의 모로비리국의 위상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성과와 유적의 가치가 인정돼 2015년 1호분과 2호분이 사적 제531호로 지정됐다. 고창군은 바로 인접해 있는 나머지 2기의 분구묘(3, 4호분)를 포함해 칠암리 고분 등 마한고분에 대한 사적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월 고창의 인물, 진환(陳璣, 1913~1951)

본명은 진기용(陳鎭用)으로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진우곤(陳宇坤)씨의 1남5녀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진환(陳璣)은 무장공립보통학교와 고창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31년 보성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1년만에 중퇴하고 독학으로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미술학교에서 공부했고, 1940년 동경미술공예학원 수료와 동시에 강사로 발탁됐다. 1941년에는 도쿄에서 서양화를 공부하는 조선 유학생들과 조선신미술협회를 결성했다. 귀국한 뒤 아버지가 설립한 무장중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화가 진환은 소를 통해 한국 농경문화의 순박한 삶을 그렸다. 황색계열의 색채를 많이 사용, 화면에 따뜻한 느낌을 줬다.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윤곽선으로 화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중간 색조로 부드럽게 완화 시켜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모두가 나섰다! 농촌일손돕기 울력 지원 '구슬땀'



고창군의 모든 구성원이 밀짚모자와 팔토시로 무장하고 들녘에 나섰다. 땀별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애썼다. 6~7월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군청 공무원과 여성단체협의회,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사회·기관·단체 1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고창 관내 농가 60여곳의 일손을 돕고 있다.

갓 들어온 신규 직원부터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나이 지긋한 과장들까지 함께 배 숙아주기 작업부터 고추 지주대 작업, 수박 손집기, 인삼밭 꽃 따기, 노지 고구마 식재, 복분자·블루베리수확 등 고창을 대표하는 다양한 작물의 영농작업을 거들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봉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상승 및 일손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바자회 열어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 6월 17일 센터 앞 주차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는 고창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류와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과 센터 직원들의 나눔기부와 보건소·고창군약사회 지원으로 회충약, 행주, 물수건 등의 후원이 이뤄졌다. 현재 고창에는 외국 국적의 노동자만 3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복분자 따기, 감자 캐기, 양파 담기, 수박 작업 등 지역 농촌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돕고 있다.

대원 센터장은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됐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 네트워킹 구축·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상하면, 화재 취약가정에 소화기 기증



고창군 상하행정복지센터가 지난 6월 2일 사회취약계층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상하여성의용소방대(소방대장 박복기)에 가정용 소화기 370대를 기증했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소방차 한 대가 출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전달식에는 상하면장, 고창소방서장(서장 백승기)을 비롯한 상하면 마을이장,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했다. 고창소방서는 소화기 사용법과 주변 화재 위험요소 점검 방법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 제과제빵 선도 기업, (주)라운

‘단짠단짠’ 신세대 입맛 저격,  
군부대·학교매점·PC방 최고 간식으로 인기몰이

고창군 복분자농공단지에는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품개발과 건강한 식품문화 창조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있다. 2013년 광주에서 공장 최초 설립 후, 2019년 성실한 땀방울의 노력으로 청정지역 고창군 복분자농공단지로 공장이전을 한 (주)라운이다. 2000평의 대지 위에 900평의 공장을 신축해 더욱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동화된 생산설비를 갖추고 햄버거빵, 앙금빵, 핫도그 등 다양한 빵류를 제조하고 있다. (주)라운의 대표제품은 햄버거 빵류이다. 군부대나 학교매점, PC방에 주로 납품하며 간식으로 인기가 좋다. 치킨바와 데리야끼·닭강정 소스가 들어있는 ‘치킨커틀렛’, 라운드스트링치즈와 고구마앙금, 피자소스의 맛이 어우러져 풍미가 고소한 ‘화이트하임’, 닭강정소스위에 라운드스트링치즈를 올리고 그 위에 마요네즈와 허니머스타드 소스를 혼합하여 만든 ‘내일도 치즈’는 국군복지단 납품제품으로 선정되어 군부대에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또 2020년 신제품 스틱마늘 바게트빵과 손바닥모양 바게트빵을 출시하였다. 바삭한 바게트에 마늘과 파슬리, 고소한 버터를 첨가하여 풍미를 살린 제품으로 카페 디저트 제품으로 인기가 좋다. 유승준 대표는 “앞으로 청정지역 고창의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연락처\_ 063-561-0145



대표제품\_ 햄버거빵



신제품\_ 바게트빵



## 고창군 일자리 지원 센터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연번	업체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유)사랑주택관리	1	아파트청소원	시급 8,590원 월-금 08:30~15:30(일6시간) 토요일격주근무 08:30~10:30	채용시	고창읍
2	석정웰파크병원	1	병원급식조리사	월급 450만원/주6일근무 오전06:00~15:00 오후10:30~19:30(2교대근무)	채용시	고창읍
3	서울시니어스 엠엔에스고창(주)	1	휴스파 프론트직원	월급 220만원/주6일근무 일8시간 스케줄 근무	채용시	고창읍
4	고창농협 하나로마트	5	배달및전열보조원 (파트타임)	시급 8,590원/일6시간근무 09:00~18:00(근무시간조율가능)	채용시	고창읍
5	(주)연우	1	사무직원	월급 180만원/주5일근무 08:30~18:00	채용시	고창읍
6	해바라기 노인복지센터	2	요양보호사 (주간보호센터등)	월급180~195만원/주5일근무 08:30~17:30(토요일무가능자)	채용시	고창읍
7	고창황토배기 청정고구마	4	농업단순노무자 (고구마농장)	시급 8,590원/주6일근무(전업가능) 08:00~18:00(토요일격주근무)	채용시	고수면
8	베리팜영농법인	2	택배, cs담당사무직원	월급 180~20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부안면
9	(주)주노파트너스 (갯벌오토캠핑장)	2	시설관리원(1명) 청소원(1명)	시급 8,590원/주5일근무 09:00~18:00 근무시간협의가능/탄력적휴무제	채용시	심원면
10	(주)세영개발	1	아스콘품질관리 실장	연봉 4,560만원/주6일근무 08:30~18:00(토요일 격주근무)	채용시	성송면
11	(주)하이팩코리아 (매일유업상하공장)	5	프라스틱우유용기 생산직(4명) 생산제품검사원 (1명)	시급 8,590원 주5일근무/ 07:00~19:00	채용시	상하면

구인·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 · 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  
일자리 상담\_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063-560-2366)



## 사서추천, 이달의 도서

상상하는 수업 구글 클래스룸



윤지영/ 기역 / 2020  
군립도서관 비치예정  
고창군립도서관 063-560-8051

코로나19사태로 온라인수업 시대가 현실이 되었다. 이 책은 구글클래스룸 개설부터 수업, 자료공유 과제제시 등 수업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현직 영어교사인 저자는 구글클래스룸을 이용하면 교과서를 벗어나 더 넓고 다양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생각과 소리를 더 많이 귀담아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생각대로 수업이 이뤄지니 아이들도, 교사도 더없이 행복해졌다고 한다. 우리지역 책마을 해리에 위치한 출판사 기역에서 펴낸 책이다.



## 땅과 바다와 산이 좋아 해와 달이 머무는 땅! 고창

- 어떤 글을 쓰다가 우연히 쓰게 된 ‘해와 달이 머무는 땅’이란 짧은 문장이 어울리는 고을을 찾고 있었다. 이 문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고을이어야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산굽이를 돌 때 눈이 환해지는 땅이 눈에 들어왔다. 아늑했으며 햇살이 넉넉하고 고왔다. 고창을 가는 고속도로는 그 때가 내게 초행길이었다. ‘아, 여기가 거기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고창이었다.
- 햇볕과 달빛이 머물면 비와 바람을 불러 모으고 생태의 순환을 도와 바닥나지 않은 기름진 생명의 땅을 유지한다. 땅과 바다와 산이 좋아 해도 달도 그냥 지나지 못하는 땅이 바로 고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5년을 간직하고 있던 내 문장이 나를 떠나 ‘고창’으로 가게 되었다. ‘좋다. 잘 되었다’는 안심이 됐다.



김용택 시인

1948년 전북 임실 진메마을에서 태어나 21세 때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

모교인 임실 덕치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섬진강 연작을 써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하다.

### 코로나19 청정지역 지켜낸다

## 고창군 보건소 안전성 높인 ‘음압컨테이너 선별진료소’ 운영



고창군 보건소 앞에 설치된 음압 텐트형 선별진료소가 ‘냉·난방이 가능한 음압컨테이너’로 새롭게 바뀌었다. 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는 가로 3m, 길이 10m, 높이 3m 규모로 역학조사실과 진료실, 검사채취실 2개, 의료진 탈의실, X-ray실로 구성돼 있다. 내부는 환자 진료공간에 음압시스템, 냉난방기, 컴퓨터, 검체보관 냉장고, 해파필터를 장착한 최첨단 공기 정화기가 설치됐다. 특히 의료진과 환자의 상호 호출과 통화가 가능한 음향시스템 등이 완비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됐다.

고창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유병수 팀장은 “최첨단 음압컨테이너 설치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고창군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지켜내기 위해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_ 고창군 보건소 선별진료소(063-560-8716, 8737, 87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새로운 일상은  
고창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 다시, 한마음으로 실천해 주세요!

#함께해요 #생활 속 거리두기

### 개인방역 5대 기본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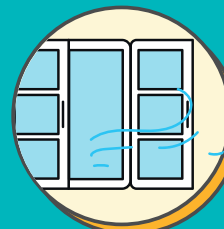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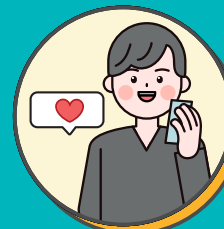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